

# OECD 정보경제작업반(WPIE)의 향후 활동 방향

문웅재\*

## 1. 개요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ICCP Committee)는 4개의 산하 작업반을 두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인 정보경제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WPIE)은 정보통신 기술(ICT) 발전의 경제·사회적 효과 및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실무 그룹이다. WPIE의 임무(mandate)를 제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의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기 앞서, 2008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제24차 WPIE 회의와 제56차 ICCP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ICT동향을 반영한 WPIE의 새로운 임무 및 기한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ICCP위원회는 WPIE의 그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활동을 재조명하는 보고서를 OECD 이사회(Council)에 제출하였다.

ICCP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임무 규정 개정(안)은 향후 WPIE 활동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제시하므로 이하에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협력연구실 연구원, (02)570-4348, mwj1@kisdi.re.kr

## 2. 정보경제작업반(WPIE)의 활동 부문 및 방향

ICCP위원회를 비롯하여 4개의 산하 작업반(WPCISP, WPIE, WPISP, WPIIS)<sup>1)</sup>의 공식 임무가 2008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OECD 이사회는 ICCP위원회 및 산하 작업반에 대하여 임무 규정 개정 및 기한 연장, 그리고 각 산하 작업반 활동수행의 적절성 평가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회원국들은 주요 수정사항을 제안하여 규정 개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다. ICCP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산하 작업반 활동평가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추가 조정사항이 없는 한 승인을 받게 된다.

ICCP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출한 활동평가서(Evaluation of the ICCP Committee's Subsidiary Bodies)는 그동안 WPIE가 1) 신기술이 디지털 콘텐츠, 고용 등에 미친 영향과 정책적 의미 분석, 2) RFID, 공공 부문 정보, 브로드밴드 등의 분야에서 창의성, 혁신, 신기술의 발전·활용 관련 이슈와 정책적 의미 조사, 3) 신생·신흥 분야에서의 지표 개발 등 3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고 정리하면서, ICCP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하였다.<sup>2)</sup>

나아가 WPIE는 향후 2009~2010년 동안 1) 네트워크 기반 ICT와 경제·사회적 효과, 2) ICT 기반 혁신, 3) ICT 벤치마킹, 4) 국가 분석 및 평가 등 4가지 부문에 초점을 맞추면서 ICCP위원회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제시하였다.<sup>3)</sup>

1) 통신인프라서비스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Policies: WPCISP), 정보경제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Economy: WPIE), 정보보호작업반(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WPISP), 정보사회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Indicators for the Information Society: WPIIS)

2) OECD, C(2008)209, 2008.12

3) OECD, C(2008)209, 2008.12

## 〈표〉 2009~2010년 OECD WPIE의 4가지 활동부문

부 문	주요 내용
네트워크 기반 ICT와 경제·사회적 효과	ICT와 환경/신규 성장 부문/성장 및 고용효과 등
ICT 기반 혁신	창의성/연구/혁신/협력 네트워크/센서 기반 환경 등
ICT 벤치마킹	‘정보 기술 전망’ 보고서 내용(‘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국가 분석 및 평가	자발적 수행

무엇보다도 WPIE는 2008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OECD Ministerial Meeting on the Future of the Internet Economy)의 목적을 향후에도 실현하고,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WPIE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고용을 달성하고,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 있어 ICT의 역할을 규명하면서 ICT와 환경에 대한 OECD 이사회 차원의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sup>4)</sup>

이와 관련하여 WPIE 임무 규정 개정(안)에 2008 OECD 서울 장관회의의 주요 결과가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기존 규정상의 경제성장·생산성·고용 증진을 위한 정책들 분석 임무 이외에도 창의성 및 혁신 증진, 지속가능한 개발 그리고 환경·보건·고령화 사회 등의 글로벌 문제 대응 관련 임무가 추가되었다. 나아가 다른 OECD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국제협력도 강조되어 기존에 명기된 비회원국 뿐만 아니라 타 국제기구, 비정부 이해관계자들과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활동의 초점을 두었다. 이는 ICCP위원회 및 4개 산하 작업반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현재의 OECD 경제산업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BIAC)와 노동조합자문위원회(Trade Union Advisory Committee to the OECD: TUAC)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인터넷기술전문가 단체와도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4) OECD, C(2008)209, 2008.12

### 3. 결 어

앞으로 OECD WPIE는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환경문제, 2008 OECD 서울 장관 회의 결과 등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글로벌 이슈들을 보다 심도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그 일환으로 WPIE는 오는 5월 개최될 ‘2009 덴마크 ICT, 환경 및 기후변화 컨퍼런스’(2009 Conference: ICTs, the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를 통해 ICT, 환경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WPIE는 최근의 범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2009년 3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7차 OECD ICCP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제위기가 ICT에 미치는 영향과 이러한 위기극복을 위한 ICT의 역할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참고자료

- OECD(2008), “Renewal of the WPIE Mandate and Evaluation by ICCP of its Subsidiary Bodies”, DSTI/ICCP/IE(2008)9, 2008. 11.
- \_\_\_\_\_ (2008), “Renewal of the ICCP Mandate by Council and Evaluation by ICCP of its Subsidiary Bodies”, DSTI/ICCP(2008)5, 2008. 11.
- \_\_\_\_\_ (2008), “Revision of the Mandate of the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 Policy Committee(ICCP)”, C(2008)209, 2008. 12.
- \_\_\_\_\_ (2009), “Summary Record of the 56th Session”, DSTI/ICCP/M(2008)3, 2009. 1.
- \_\_\_\_\_ (2009), “Draft Agenda of the 57th Session”, DSTI/ICCP/A(2009)1, 2009. 2.